시간 안내

희년 순례 안내

여름 (3월 19일 – 10월 31일): 11:00, 18:30
겨울 (11월 1일 – 3월 18일): 단체 순례는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희년의 문 입장 전례

여름 (3월 19일 – 10월 31일): 11:30, 19:00
겨울 (11월 1일 – 3월 18일): 19:00

순례자 미사

여름 (3월 19일 – 10월 31일): 12:00, 19:30
겨울 (11월 1일 – 3월 18일): 19:30

고해성사

10:00 – 12:00, 18:30-20:00

연대하는 자세

우리 교구의 선교전통과 함께 일치 안에서 그리고 이 희년의 교회적 측면과 함께 조화 안에서, 우리는 더 필요한 이들 안에서 희망의 표지가 되고자 합니다.

부르고스 출신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신생 선교지들의 강화, 양성, 성장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선교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카: 온두라스 San Pedro Sula 교구, 에콰도르 Puyo 대리구
아프리카: 잠비아 Solwezi 교구
아시아: 태국 Udon Thani 교구

다음의 계좌로 기부를 통해 연대하실 수 있습니다:
ES33 2085 4891 8103 3065 8582
ES97 2100 0097 3322 0039 4878

부르고스 대성당 800 주년 희년 기도

하느님 나라가 오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의 힘으로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르고스 교구의 어머니 교회인
대성당의 팔백 주년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신앙인 공동체로서
교구장 주교와 일치하여
계속해서 믿음을 거행하고
복음을 선포할 것을 새롭게 서약합니다.
저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희망의 증거자였던
선교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 더욱 정의롭고
형제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저희를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의
살아 있는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느님 아버지께 청합니다.
모든 여인중에 가장 복되신 성모 마리아여
삶의 여행길 순례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아 멘.

희년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부르고스 대성당 8백주년

7th november 2020 / 7th november 2021

AÑO JUBILAR 2020 - 2021 VIII CENTENARIO CATEDRAL DE BURGOS "SOIS TEMPLO DE DIOS"

VIII centenario CATEDRAL Burgos 2021

PONTIFICIUM CONSILIUM DE CULTURA

www.archiburgos.es/jubileo
jubileo@archiburgos.es

우리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2021년 7월 21일은 현재 부르고스 대성당의 건축을 시작한지 80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성당은 한 교구의 가장 중요한 성당이며, 모든 본당들의 어머니 성전입니다. 그 안에는 한 교구의 목자가 관할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르치고, 사목하며, 미사를 거행하는 가시적인 장소인 주교좌가 위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성당은 전례력의 큰 축제들이나 교구의 모임들을 위해 신자들이 교구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또한, 대성당은 살아있고 증거된 신앙의 아름다움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건축물의 아름다움 안에 구체화시킬 줄 알았던 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념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교로 파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끄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인 교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선별된 표어는: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6)

우리가 지닌 고유한 존엄성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느끼는 공동 책임감을 장려하도록 초대합니다.

희년의 은총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희년을 살아가는 은총을 인가하셨습니다. 희년은 2020년 11월 7일 부터 거행하기 시작하여, 2021년 11월 7일 (교구의 날)에 마칠 것입니다. 이 희년 동안 다음의 몇 가지 자세들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1. 큰 기쁨 : 희년의 정의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쁨은 그 공동체가 자신의 대성당 안에 상속받은 신앙의 가시적 표지를 지니며, 이 성전 안에서 그 신앙을 살아가고 성장시키 위하여 계속 세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2. 감사 : 희년은 우리와 함께 동반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천막을 세우신 역사 속의 하느님을 향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3. 화해 : 특별히 희년은 죄와 그로 인한 벌을 용서받는 해입니다. 속죄의 측면은 교회가 제공하고 하느님 용서의 거행과 회개로 이끄는 대사 안에서 표현됩니다.

4. 함께 걸어감 : 희년은 특별히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공동체와 공동 책임을 장려하며, 교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고스 교회는 이를 교구모임.
과 함께 지냅니다.

5. 신앙의 사회적 측면 : 성경의 전통을 따라, 희년은 우리들의 사회적 감수성 안에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 안에서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희년의 전례들

다음과 같은 외적인 표지들은 내적인 마음가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가 희년의 은총에 다다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대성당 순례 : 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신앙인의 순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희년의 문을 지남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난 삶의 방식을 버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사의 거행 :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의 참여는 희년의 거행 안에서 핵심적인 순간들입니다.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우리는 이처럼 세계 교회와 일치합니다.

봉헌 : 자캐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특별히 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우리를 연대와 자비로 인도합니다.

희년 순례 안내

희년의 문을 통한 입장을 하기 전에, 내면의 준비를 도와주는 다음과 같은 작은 순례를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과정 : 대성당의 희랑 .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땅을 발견하고, 그 역사의 장소를 느낍니다.

두번째 과정 : 사르멘탈의 문 . 스승이며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세번째 과정 : 정면 파사드 . 예수님을 신뢰하신 복되신 성모님을 발견합니다.

네번째 과정 : 희년의 성문을 통한 . 입장.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합니다.

다섯번째 과정 : 성사의 거행 .